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기준 논란

정부 광주비행장 등 '85웨클'로 적용

주민들 "75웨클부터 인정해야" 반발

정부가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으로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준 강화를 촉구해 온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해 말 '광주공항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주민 10명 중 9명이 85웨클 이하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는 점에서 추가 집단소송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연내 광주비행장 등 전국 49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음대책의 기준을 85웨클로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투기 소음이 85웨클을 웃도는 곳은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는 광산구와 서구 등 피해 주민 가운데 85웨클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20%선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추가 집단 소송 등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치평동을 비롯한 서구 주민 3만9000여명, 송정동을 포함한 광산구 주민 3만2000여명 등 모두 7만10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광주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 측은 전체 피해주민 가운데 정부 기준에 해당하는 85웨클 이상 지역의 주민이 1만5000여명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시행되면 광주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5명 중 4명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서구 등 광주공항 인근 주민 3만875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하한선을 85웨클로 적용해 소송 주민 90% 가량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이 광산구민 1만3936명이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215억원의 배상 판결을 한 것과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었다.

한편,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서구 주민 등은 전국 소음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재판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항소를 준비 중이다.

국강현 광주공항소음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기준은 최소한 75웨클이 돼야하는 데도 정부가 85웨클로 적용하려는 것은 피해 주민들을 외면한 '생색내기'식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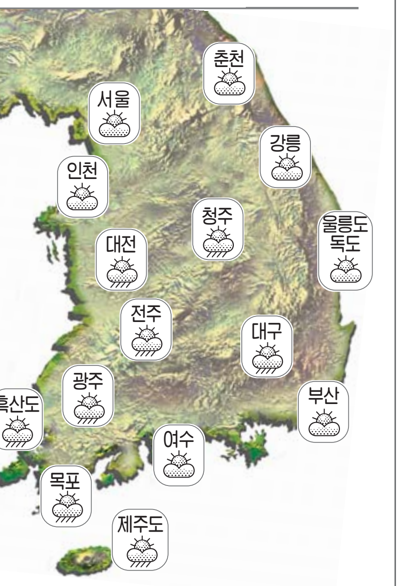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7분 / 해짐 19시 41분
달뜸 19시 41분 / 달짐 05시 33분

대지 식히는 소나기

오후나 밤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많고한때비	24/32℃
목 포	구름많고한때비	24/30℃
여 수	구름많음	24/29℃
완 도	구름많음	24/31℃
구 례	구름많고한때비	23/33℃
해 남	구름많음	24/31℃
장 흥	구름많음	24/32℃
고 흥	구름많음	23/31℃
순 천	구름많음	24/31℃
영 광	구름많음	23/30℃
진 도	구름많음	24/32℃
전 주	구름많고한때비	23/31℃
남 원	구름많고한때비	22/30℃
흑산도	구름많고한때비	23/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높음	경고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밀물	썰물
목포	02:35 14:24	07:51 19:46
여수	09:06 21:46	03:16 15:1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1(일)
날 씨						
최저/최고	25/30	25/30	26/30	26/31	26/33	25/33

불법 주·정차 단속 '확' 바뀐다

광주시, 오늘부터 3개 단속구역으로 나눠 선별조치

예고 후 단속 폐지…생계형 차량 1회 계도 후 조치

광주시가 음란 유인물 전단지에 이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주시는 도로나 구역별 단속지침을 마련해 기존 편의 위주의 견인에서 교통 소통 위주의 단속으로 바꿀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가 간선도로에서 주택가 골목길까지 만연해 있는데다 그 동안 교통소통과는 상관없이 자치구나 견인업체 편의에 따라 단속·견인이 이뤄지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정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이번 주부터 황색실선 내 주·정차 차량을 모두 단속했던 기존 지침과는 달리 단속구역을 중점·일반·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눠 선별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중점단속구역은 6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버스전용차로,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보도, 버스정류장, 2열 주차, 유흥가 주변 간선도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받는 곳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이다.

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계도나 유예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된다.

6차로 미만과 지선 및 골목길 등 교통소통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곳은 일반단속구역으로, 교통소통 위주로 순회 단속하고 이동조치 명령 또는 유예시간(5분) 경과 후 조치하고, 행사·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시장,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해 단속하는 지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지만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이 있는 특별단속구역은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 시 단속 및 견인에 나설 방침이다.

또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대에 대처하기 위해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늘리고, 토·공휴일에도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우려 지역을 위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자치구 별로 선별 시행하고 있는 예고 후 단속은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폐지하기로 했으며, 다만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1회 계도 후 조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고향 뒷산 거닐 듯…무등산 옛길 3구간 개방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장원삼거리~충장사~가사문화권을 잇는 무등산 옛길 3구간(11.3㎞)이 개방된 지난 24일 등산객들이 완만한 코스를 여유롭게 오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교육장 공모 28명 응모 5.6대1

전남도교육청이 추진중인 도민추천교육장 공모에 28명이 응모, 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교육장 공모접수를 마감한 결과, 목포와 무안 각 6명, 고흥 4명, 곡성 5명, 해남 7명이 응모했다. 응모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경력 2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현직교장이면서 일선 교육청 교육과장, 장학관 등 전문직을 거친 응모자가 15명, 현재 교육 전문직을 맡고 있는 경우는 9명이었다. 교장 경력만 있는 응모자는 4명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다음 주 내부 2명, 외부 9명 등 11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교육청 8월말까지 '암행 감찰'

전남도교육청이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26일부터 8월말까지 벌인다.

감찰은 본청 감찰팀 3개반 9명이 투입되며 학교와 산하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암행감찰 방식으로 실시한다.

나태해지기 쉬운 복무에 대한 점검은 물론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등 예산집행, 방과후학교 운영, 수학여행, 학교급식 비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찰활동을 병행한다. 도 교육청은 사전에 제보된 비리 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 다양한 경로로 자료를 수집해 감찰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내용은 무관용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감찰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찜통더위 기승…곳곳 열대야

광주·전남 내륙지방 오늘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26일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뿌린 뒤, 27일과 28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특히 시간당 20㎜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어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도가 상승해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내리는 소나기인 탓에 낮 최고기온(광주 32도)은 변함이 없는 등 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27·28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다소나마 폭염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와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이번 한 주도 낮기온이 대부분 30도를 넘는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010학년도 일제고사

'성적 오른' 학교만 공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부 학교 명단을 연말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우수 학교를 공개하고 성적이 향상된 비결을 소개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그 외에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구분해 공시된다.

/연합뉴스